

편집인: 신공범(70)  
김영희(67)  
여경희(76)  
발행인: 김정진(66)

Cleveland, Ohio

35년의 경험으로 편안한  
여행을 약속드립니다.

## 이화 여행사

347 5th Ave., #604 • New York, NY 10016  
212.244.3345 • 800.223.6476 • ewhatravel@hotmail.com

김은애 (64)



*green printing & packaging  
for the next generation*

**Ross Printing Co.**

216.241.0282

[www.ross-printing.com](http://www.ross-printing.com)

오경자 (60)



Ewha Educational Foundation, Inc.  
이화여고 북미주 총동창회  
P.O. Box 470146  
Broadview Hts., OH 44147-0146

*Address Service Requested*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CLEVELAND OH  
PERMIT NO. 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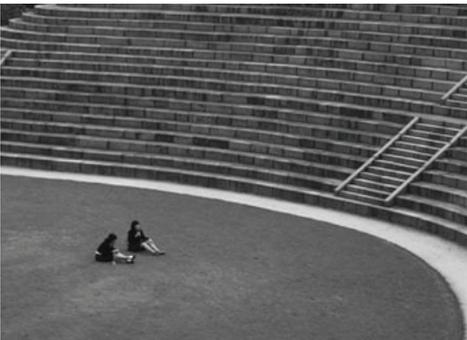
# 배꽃향기

제 1 호



The Newsletter  
of  
Ewha Girls' High School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published by the Cleveland, Ohio Chapter

[www.ewhagirls.net](http://www.ewhagirls.net)



June 2010



존경하는 북미주 이화 동문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010-2011년 북미주 이화여고 총동창회 4대 회장을 맡게 된, 1966년도 졸업, 김정진입니다.

항상 이화를 사랑하시고, 모교를 위해 서슴치 않고 헌신하시는 한영숙 초대회장님, 김광자 2대회장님, 그리고 김수자 3대 회장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이화 여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된지 첫해이며, 내년은 저희 이화여고 125주년 창립 기념해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북미주 총동창회 총회를 2011년 8월 27일에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에서 개최하게 되어, 저희는 참으로 이화의 역사적인 책임을 느끼며, Scranton여사와 Baldwin여사로 인해 '이화의 씨앗'이 시작된 Cleveland에 오시는 동문님들을 정성껏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0-2011년, 실행 위원회 임원진은 고문 한순남(52), 회장 김정진(66), 부회장 김영진(67), 당연직 부회장: 각지역회 회장님들, 총무 여경희(76), 서기 김영희(67), 회계 김현진(76), 총회 준비위원장 신공범(70), 만찬 준비위원장 김재희(75)입니다.

사업계획은, 제 4회 총회 준비 {날짜: 2011년 8월 27(토) - 8월29일(월)}, 북미주 총동창회 주소록제작, 이화 newsletter '배꽃향기' (연 1회 발간)와 www.ewhagirls.net을 통한 미국 전지역과 캐나다 동문들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며, 이화 모교가 자율형 사립고가 되는 중요한 시기에 '이화 자율형 사립고 기념 장학금' 모금운동을 시작합니다.

총동창회 목적은, 북미주 동문의 화목과 우정 추진, 한국 동창님들과 재연결 촉진, 모교 이화의 발전을 위한 보조와 공헌 입니다.

2010년은 미국의 인구 조사(census)가 시행되는 해입니다. 동시에 저희도 이화인의 센서스 현황을 잘 파악해 이화동문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는 미국, 캐나다에 거주하는 이화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그동안 연락이 잘 되지 않은 이화동문들의 소식을 듣고자 합니다. 혹시 그 동문님들의 연락처를 아시면 각 지역 회장님이나 총동창회에 보내 주시면 이화 주소록을 만드는데 큰도움이 되겠습니다. 총동창회 주소록은 내년 총회때 배포되도록 계획합니다.

동문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2011년 클리블랜드에서 꼭 뵈게 되길 원합니다.

북미주 각 지역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화 동문님들의 각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북미주 총동창회 회장, 김정진(66) 올림

\* \* \* \* \*

Dear Members of Ewha Girls' High School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Greetings!

It is a great honor for me to assume the responsibility of a two-year term as the fourth president of our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My biggest hope is that I can continue the legacy of our three previous presidents: Mrs. Young Sook Han, Mrs. Kwang Ja Kim, and Mrs. Soo Ja Kim. I deeply appreciate their tireless dedication to the good cause of our school.

I am a graduate of the class of 1966 and a proud member of our very active North East Ohio Alumnae chapter, whose executive committee members are: advisor Soon Nam Hahn(52), vice president Young Jin Kim(67), secretary Kyung Hee Yoe(76), recorder Young Hee Kim (67), treasurer Hyun Jin Kim (76), convention committee chairperson Kong Bum Shin (70), and banquet committee chairperson Jae Hee Kim(75).

The year 2010 marked Ewha's very first year as a 자율형 private school, and next year our beloved alma mater will turn 125 years old. From August 27 to August 29, 2011, the Cleveland chapter will host a celebration of these momentous occasions at the biannual Ewha Convention. As you know, Cleveland holds a significant place in Ewha's history: in 1883, it was here that Mrs. Scranton and Mrs. Baldwin began seeding their passion for girls' education in Korea. We are planning the convention bearing in mind the great historical importance of this time and place for Ewha.

As the United States conducts the 2010 census, we also hope to get better "census" of our Ewha graduates in North America. Please help us find our alumnae who are not actively involved so that we can develop a stronger network and a directory of Ewha graduates here in North America. The purpose of our association is promoting closer relationships among alumnae in North America, reconnecting with alumnae in Korea, and supporting the continued success of our alma mater. To that end, our business plans include the following: planning the convention, creating an Ewha alumnae directory, publishing a newsletter '배꽃향기', communicating through our website, www.ewhagirls.net, and creating a scholarship to honor the occasion of 자율형 private school for Ewha.

Please join us in celebration of Ewha's 125 years of history here in Cleveland, Ohio on August 27, 2011.

I wish happiness, health, and prosperity to you all. Thank you very much.

EGHSAANA President, Jung Jin Kim El-Mallawany (66)



### 이화를 사랑하는 북미주동창 여러분!

‘배꽃 향기’ 창간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드립니다. 머나먼 미국 땅에서 이화 동산의 학창시절을 그리워하며, 후배들과 이화의 발전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는 여러 동창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화의 부름을 받아 작년에 교장으로 취임하여 이화를 섬기게 되면서 저는 정말로 이화를 사랑하는 많은 동창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화에서 사랑받고 자라난 많은 동창님들이 이화를 사랑하며 그리워하며 헌신적으로 모교에 지원하는 모습에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창님 한분 한분께 마음을 다해 깊이 감사드리며, 부름을 받은 청지기로서 저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많은 동창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이화를 빛내는 것을 보면서, 124년의 긴 역사를 가진 이화여고는 참으로 복되고 훌륭한 학교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제가 이화에 와서 가슴 깊이 느낀 것은, 이화졸업생들 모두는 한결같이 ‘이화 동창’이라는 사실에 강한 자부심과 모교 사랑을 철저히 지니고 있다는 감동적인 사실입니다.

2010년, 이화는 평준화 이후 오랜 숙원이었던 자율형 사립학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최선의 교육으로 명성을 되찾고자 모든 이화가족들이 마음을 모아 다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력 있고 가능성 많은 꽃봉오리 같은 후배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사랑과 관심으로 최고의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기숙사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생화와 장미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이화의 정원, 문학과 친교가 어우러진 등나무 향내 나는 길, 인생의 꿈을 설계했던 햇살이 따사로운 노천극장, 웅장한 유관순 기념관 등과 함께, 이화의 기숙사는 이화인들의 꿈을 세계로 펼쳐 나갈 수 있는 보급자리가 될 것입니다. 후배들이 동창님들의 꿈을 이어나가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북미주 동창님들의 모교사랑이 배꽃처럼 환하게 이화를 수놓을 것이라고 믿으며 다시 반갑게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항상 모교를 사랑하며 그리워하는 동창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그 축복을 서로 나누는 귀한 장이 될 ‘배꽃 향기’의 창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화 여자 고등학교 교장, 강순자(62)



### 이화여고, “자율형 사립고” 로 선정 !!

이화여고 북미주 모든 동문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화여고 북미주 총동창회에서 추진하였던 “이화여고 자율형 사립고 인가를 위한 청원 서명운동”에 많은 북미주 동문들과 그 가족, 친지들이 기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 당국의 철저한 준비 등 학교 교직원, 재단이사회, 국내외 동창들의 노력으로 드디어 2009년 7월 15일에 우리의 모교 이화여고가 여자고등학교로는 유일하게 “자율형 사립고”로 선정되어 우리 모두의 오랜 꿈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특히 스크랜튼 학당장 서거 100주기가 되는 뜻깊은 해에 우리 모교 이화여고가 옛 명문교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모교는 2010학년도부터 비록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국한되기는 하지만 학군에 관계없이 이화여고가 정한 선발 기준에 의하여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었고, 교육과정도 공통 교육과정의 50%만 따르면 되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와 차별화된 자율적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원 서명운동을 처음 제안한 이군자 총동창회 부회장님과 청원위원(이보영, 최성남, 이화인)을 비롯하여 기꺼이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신 동문, 그 가족, 친지 여러분들과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화여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도 적극적인 지원과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화여고 북미주 3대 총동창회장 김수자(61)

\*\*\*\*\*

\*\* 본교 정창용 교장선생님의 편지(E-Mail)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교 정창용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7월 15일 드디어 그동안 이화가 바라던 자율형 사립고가 결정되었습니다. 이화를 비롯한 13개 학교가 서울에서 정해졌습니다. 이화는 기독교적 인성교육과 시대를 선도하는 여성지도자 양성이라는 건학 이념을 잘 실현하고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가진 학교이며 든든한 재단과 동창회가 지원하는 학교로 높은 점수로 선정되었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동창님들의 성원도 큰 몫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화가 자율형 사립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언제나처럼 모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화동산에서 13대 교장 정창용(66)



## 5월의 인사



장명수(60) (총동창회장, 한국일보 고문)

‘이화의 달’인 5월을 맞아 북미주 동창 여러분께 인사 드립니다. 지금 이화여고 캠퍼스는 다투어 피어나는 꽃들과 신록으로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이화학당 시절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아름답고 고목들이 이화의 오랜 역사를 말해줍니다. 개나리 철쭉 목련 라일락 모란 등이 차례로 피었다 지는 사이에 어느덧 이화 캠퍼스는 초록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북미주 총동창회장으로 그 동안 수고하셨던 김수자 동창께 감사 드립니다. 동창님은 임기 동안 스크랜튼 장학금 모금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이화가 저개발국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는 뜻 깊은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2009년의 북미주 동창총회를 성황리에 치러 내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회장이 되신 김정진 회장님의 활약을 크게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해 봄 뉴욕에서 열렸던 북미주 총동창회와 성대한 기념음악회를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창님들이 낯선 미국 땅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동안 이화에서 받은 교육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화는 넘치든 부족하든 우리 모두를 소중하게 보듬어 키워주셨고, 매일 아침 노천극장 조희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세상에는 수 많은 승리의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재주를 찾아 열심히 노력하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일찍이 이화에서 배웠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동창님들은 미국에서 각자 승리의 길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북미주 동창님들이 스크랜튼 장학금을 모금하여 한 세기 전 이화학당을 세워주셨던 미국 감리교 여성선교회에 기부한 것은 이화 역사에 길이 남을 뜻 깊은 일입니다. 스크랜튼 선생님이 계셨기에 오늘의 이화가 있고, 오늘의 우리가 있고, 오늘의 한국 여성사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마음으로 동창님들은 보은의 장학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스크랜튼 선생님처럼 저개발국 여성 인재들의 가슴에 희망의 겨자씨를 심고자 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와 저는 그 이야기를 신문에 칼럼으로 썼고, 또 많은 자리에서 자랑도 하였습니다. 한 퇴직 공무원이 제 이야기를 듣다가 눈물을 닦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화의 교육은 무언가 다르군요. 단지 공부 잘하는 학생을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을 키우는 것 같군요”라고 그 분은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화 동창이라고 합니다.

2011년 북미주 동창 총회는 오하이오 주에서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오하이오는 이화와 인연이 깊은 곳이어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1883년 “코리아에 여학교를 세워달라”면서 88불을 기부하여 여성 선교국이 조선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던 루신다 B. 볼드윈 부인은 오하이오 주의 라벤나라는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볼드윈 부인은 그 당시 동경대 동양학 교수였던 그리피스가 쓴 ‘은자의 나라 조선’(1882년 뉴욕에서 발간)을 읽고 조선 여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돕고 싶었던 게 아닌가 짐작됩니다.

이화의 5월은 참으로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주신 선생님들을 그리워하게 합니다. 이화의 5월이 우리를 부릅니다. 개교기념일 잔치에서 많은 동창님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만 줄입니다. \*\*\*

### ‘배꽃향기’ 창간 축하



제 1대 (2005-2006)  
한영숙 (56)  
(L.A.)



제 2대 (2006-2007)  
김광자(62)  
(Washington D.C.)



제 3대 (2008-2009)  
김수자(61)  
(New York)

**참 좋은 학교 이화, 훌륭한 학교 이화, 멋진 학교 이화**

존경하는 이화여고 북미주 동창회원님들께,



2008년 1월 김광자(62) 회장님의 뒤를 이어 제가 이화여고 북미주 총동창회 일을 맡아 해 온지도 어느덧 2년이란 세월이 지나 임기를 한 달 남짓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 임원진들은 각 지역 동창회장님들과 모든 동창회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에 힘입어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임기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저희들이 해온 일들을 모든 회원님들께 알려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희 제 3대 임원들은 북미주 각 지역 동창회와 모든 동창회원들간의 친목올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늘 연구하고 토의하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음악회, 총회, 만찬, 각 지역동창회 방문, 스크랜튼 장학 기금 모금, 모교 행사 참석등 여러가지 행사를 하면서 자부심도 느꼈지만 행사 후에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특히 2009년은 저희들에게 잊지 못할 한 해였습니다. 우리 이화학당 설립자이신 스크랜튼 학당장님의 서거 100주기가 되는 해이며, 아시아 교육 봉사회(회장: 강순자 (62) 이화여고 교장)가 주관이 되어 이대부속초등학교 동창들이 모금을 하여 캄보디아의 스랑 마을에 이화 스랑 초등학교를 세워 스크랜튼 학당장님이 123년 전에 이화에 뿌리신 한 알의 밀알이 캄보디아의 스랑 마을에서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모교에서는 정창용 교장선생님이 정년 퇴임하시고 강순자 교장선생님께서 취임하셨고, 이화여고가 여자고등학교로는 유일하게 자율형 사립고로 선정되어 30여년 간 잃었던 명성을 다시 찾을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화여고 북미주 3대 총동창회장 김수자(61)

\*\*\*\*\*

**두배, 곱으로 채워주시는 축복과 사랑**

지난 3월 북미주 각 지역과 서울에서 약 350명 가까운 우리 이화여고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 3차 총회와 음악회를 개최한 지도 어느덧 석달이 지났습니다.



이화여고 북미주 총동창회 제 3차 총회와 스크랜튼 학당장 100주기 기념 음악회로 기록할 수 있는 이화여고 동창 음악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물심 양면으로 정성껏 도와 주신 이화여고 북미주 각 지역 동창회장님과 동창회원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 기쁨으로 그 많은 시간 동안을 같이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음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 3차 총회 행사를 준비하면서 희망했던 “이익금 삼만불(\$30,000.00)!”이란 우둔한 자(?)의 허황한 꿈을 하나님께서는 두 배로, 곱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그 이익금 중에 오 만불(\$50,000.00)은 모교 스크랜튼 기념 장학금으로, 또 일 만불(\$10,000.00)은 이화가 설립될 수 있도록 \$88.00의 헌금을 하신 Mrs. Lucinda Brown Baldwin을 기념하는 Baldwin-이화장학금으로 모교 이화에 기증하기로 하여, 이화여고 북미주 총동창회 김수자 회장이 2009년 5월 29일 모교 123주년 개교 기념식에서 정창용 교장선생님에게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미주 총동창회의 첫번째 사업인 스크랜튼 장학금은 모금액 중 \$275,000.00 을 모교 정창용 교장선생님께서 미연합 감리교 여성국 산하의 스크랜튼 센터 사무총장인 김혜선(73) 목사님에게 개교123주년 기념식에서 전달했습니다.

이화여고 북미주 총동창회 회원이나 전,현직 임원으로써 이 행사를 위하여 총동창회비, 후원 이사회비, 등록비, 특별 찬조금, 장학 기금, 음악회 입장권 판매, 회지 광고 등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크고 작은 금액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합창단원으로 수고하신 우리 동문들, 또한 특강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강사님들께 이 모든 행사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음에 다시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생명이 없어 보이던 나무에서 때가 이르니 개나리, 진달래, 벚꽃, 장미가 앞을 다투어 피어나며, 온 천지가 생명의 열기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이화의 행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 두 배, 곱으로 채워주시는 축복과 사랑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어둠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빛되시는 삶으로 새로운 역사를 또 창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화여고 북미주 총동창회 3대 실행위원 일동



### 북미주 총동창회 소개



이화여고 북미주 총동창회는 북미주에 있는 각 지역 동창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모교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되었으며 그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Ewha Educational Foundation(EEF)을 설립하고 비영리 단체로 주정부와 IRS에 등록을 하였다.

북미주에 18개의 지부가 있으며 총동창회의 사업으로는 은혜의 빛진자로서 모금을 시작하였던 Mary Scranton Scholarship이 있으며 본 장학금은 미여성국 산하 한국에 본부를 둔 스크랜튼 센터를 통하여 불우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3세계 여성들의 교육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다. 그리고 3대 총동창회 임원진이 시작한 모교의 학생들을 위한 스크랜튼 장학금과 오하이오 Ravenna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Baldwin-이화 장학금등이 있다.

또한 총동창회에서는 음악회, 미술전, 장학금을 위한 후원금 모금 운동 그리고 모교의 발전을 위한 북미주 동문들의 서명 운동등을 중심으로한 총동창회의 사업 이외에 총회를 마친후 동문들을 위한 멋진 단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자연과 멋진 동문들, 다시금 먼 옛날 천진난만한 소녀의 시절로 돌아가 벗들과 함께 하는 여행! 이 멋진 여행으로 재충전되어 2년 후를 기약하며 각자의 삶의 공간 속으로 돌아간다.

다시 만날때까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화인의 긍지인 자유, 사랑, 평화를 추구하며, 아름다운 배꽃 향기 내음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소원하며, 만만세, 만만세 우리 이화!!

- 회 장**  
김정진 (66)
- 실행 부회장**  
김영진 (67)
- 총 무**  
여경희 (76)
- 서 기**  
김영희 (67)
- 회 계**  
김현진 (76)
- 총회 준비 위원장**  
신공범 (70)
- 역대 회장**  
초대: 한영숙 (56)  
2 대: 김광자 (62)  
3 대: 김수자 (61)
- 스크랜튼 장학금 기금 위원장**  
김수자 (61)
- 당연직 부회장**  
정경숙 (59)  
Atlanta, GA  
신영자 (62)  
Detroit, MI  
남훈선 (67)  
Boston, MA  
변숙자 (71)  
Chicago, IL  
김영진 (67)  
Cleveland, OH  
이학자 (61)  
Dallas, TX  
유경옥 (57)  
Honolulu, HI  
장기숙 (54)  
Houston, TX  
김병화 (58)  
Los Angeles, CA  
이정화 (66)  
New York, NY  
이정화 (52)  
Philadelphia, PA  
백인경 (73)  
San Diego, CA  
최길자 (60)  
San Francisco, CA  
박영자 (61)  
Seattle, WA  
이정렬 (57)  
Washington, DC
- Canada**  
나경애 (69)  
Calgary, Canada  
김선옥 (68)  
Toronto, Canada  
이미경 (76)  
Van Couver, Canada

1차 발기 총회 - 10/29-31/2004 Los Angeles, CA (LA 동창회)

초대 회장 - 한영숙(56) 10/29/04-12/31/05  
Mary Scranton Scholarship 모금 운동 시작

2차 총회 - 10/20-22/2006 Falls Church, VA (워싱턴 디시 동창회)

2대 회장 - 김광자(62) 1/1/06-12/31/07  
Mary Scranton Scholarship 모금 운동이 계속 됨

3차 총회 - 3/19-21/2009 Teaneck, NJ (뉴욕 동창회)

3대 회장 - 김수자(61) 1/1/08-12/31/09  
3/19/2009 - 스크랜튼 여사 서거 100주년 기념 음악회  
(Alice Truly Hall, Lincoln Center)

총회에서 Mary Scranton Scholarship \$275,000을 미여성국 산하 한국에 있는 스크랜튼 센터에 보내기로 결정함.  
모교에 스크랜튼 장학금과 Baldwin-이화 장학금을 설립함

4차 총회 - 8/27-8/29/2011 Independence, OH

(클리블랜드 오하이오 동창회) 개최 예정  
4대 회장 김정진(66) 1/1/10-12/31/11  
8/27/2011- 이화학당 개교 125주년 기념 음악회 예정  
(Kulas Hall, Cleveland Institute of Music)

이화 자율형 사립고 기념 장학금 모금운동 시작  
배꽃향기 발간 및 북미주 총동창회 주소록 제작중임



클리블랜드 오하이오 동창님들

The Newsletter of Ewha  
Girls' High School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8993 Crooked Creek Ln.,  
Broadview Hts., OH 44147  
is published annually.  
June 2010 issue 1

북미주 총동창회 행사 화보



박영자(61) 회장, Seattle 동문회



역대회장 (R-L)  
초대 한영숙(56)  
2대 김광자(62)  
3대 김수자(61)



남훈선(67) 회장, Boston 동문회



Mrs. Mary Scranton 100th Memorial Concert / Ewha Girl's High School Alumnae Choir  
March 19, 2009 Alice Tully Hall, Lincoln Center, New York



최성남(66) 회장, New York 동문회



이정화(52) 회장, Philadelphia 동문회



이화북미주총동창회 바하마크루즈 3/21 - 3/28/2009



신영자(62) 회장, Detroit 동문회



San Francisco 동문회



남가주 동문회



LA 동문회

### From the desk of Cleveand Chapter

우리가 사는 오하이오 지역 클리블랜드에서 총동창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이 부담이 되면서도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개최해온 L.A., 워싱턴 D.C., 뉴욕의 훌륭한 업적을 따라가도록 이곳 실행위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행사장 호텔 예약, 음악회 장소 예약, 뉴스레터 발간, 총동창회 주소록 발간 등등,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부디 각 지역의 회장님들, 동문님들께서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만세 만만세 우리 이화!” 자랑스러운 이화의 딸들이 함께 만나는 2011년을 기약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모든 동문님들 가정에 평안과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클리블랜드지회 실행위원일동

\*\*\*\*\*

### 제4회 총회 Preliminary Schedule

8월 26일: 7:00 p.m. - 10:00 p.m. Light reception for Alumnae  
(금) 8:00 p.m. - 10:00 p.m. 임원회, 각 지역 회장과 실행위원 임원회의

8월 27일: 7:30 a.m. - 8:30 a.m. Breakfast  
(토) 9:00 a.m. - 11:15 a.m. Lecture series  
11:30 a.m. - 1:00 p.m. Luncheon with Principal and the President  
1:30 p.m. - 5:00 p.m. Tour of university circle  
5:30 p.m. - 6:30 p.m. Dinner  
7:30 p.m. - 9:30 p.m. Ewha Concert  
9:30 p.m. - 10:30 p.m. Post concert reception  
11:00 p.m. Return to hotel

8월 28일: 7:30 a.m. - 8:30 a.m. Breakfast  
(일) 8:30 a.m. - 9:00 a.m. Worship  
9:00 a.m. - 11:00 a.m. General alumnae meeting  
11:15 a.m. - 5:30 p.m. Tour to Ravenna, Ohio  
6:30 p.m. Banquet  
12:00 midnight Slumber party

8월 29일: 7:30 - 8:30 a.m. Breakfast  
(월) 9:00 a.m. - 10:00 a.m. Chapel  
10:00 a.m. - 11:00 a.m. Wrap up session  
11:30 a.m. Departure  
Post Conference trip: to be announced

\*\*\*\*\*



왜 하필이면 클리블랜드, 오하이오? ~~~~~ What is there?

#### Because, Ohio is

- 8명의 미국 대통령이 나온곳
- 정치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때 너무나 중요한 주로, 항상 누가 대통령이 되나를 정하게되는 주
- 비행이 Wright brothers로 부터 시작 된곳
- 우리들이 늘 즐겨 부르던 노래의 주인공,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나의 사랑하던 메기가 살던곳
- 배우 Paul Newman이 태어나 살던곳
- 농구선수 LeBron James가 뛰고 있는 Cavalier의 고향
- 연세 대학 병원의 Severance가문이 살던곳
- 세계적으로 유명한 Cleveland Orchestra의 집인 Severance Hall이 있는곳
- Cleveland Art Museum 의 수준 높은 Collection을 자랑하는곳
- Rock 'N' Roll의 발생지이며 Rock 'N' Roll Hall of Fame은 파리의 루블 박물관 앞에 피라밋을 설계한 유명한 건축가 Mr. Pei가 디자인한 또 하나의 피라밋 건물이 있는곳
- 세계적인 PGA 코스인 Firestone 골프 코스가 있는곳
- Good Year 타이어의 산지이며 Rubber City인 Akron은 한국 타이어 회사들의 연구소 산실
- First lady들의 Library가 위치한 곳 (National First Ladies Library)
- 맥켄리 대통령 박물관이 있는 곳 (McKinley Presidential Library & Museum)
- Pro Football Hall of Fame의 발생지

#### 이화역사의 요람지:

- Scranton여사가 아들 Dr. William Scranton과 같이 살던 곳
- 우리나라 여성교육의 기부자 1호인 Baldwin여사가 살던곳
- 이화의 초기 3교장 선생님들이 오신 곳

## 이화여고 북미주 총동창회 스크랜턴 장학금 보고 스크랜턴 여성 리더십 센터

김혜선 사무총장(73)

스크랜턴여성리더십센터는 2009년 이화여고북미주총동창회가 기부한 스크랜턴 장학금을 인도의 Isabella Thoburn College와 파키스탄의 Kinnaird College for Women 학생들에게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 두 학교를 선정한 데는 이들이 이화여고와 역사적으로 자매관계이기 때문이다.

1869년 미감리교회 해외여성선교사공회(WFMS :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가 창설된 이유는 바로 인도 여성들의 열악한 상황의 이야기를 들은 미감리교 여성들이 그곳에 여자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였다. WFMS가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가 Isabella Thoburn이었으며, 그는 여성들이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교육이라고 믿고 여학교를 설립하였다. 당시 인도 여성들의 상황을 보면 120년전 한국 여성들과 너무 흡사하다. Isabella Thoburn 여학교가 1886년 대학으로 발전되어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여자대학이 되었다. 이 학교의 설립은 미여성교회 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가 되어 다른 아시아 나라 여성 교육에도 열정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열정이 불드린 여사의 꿈과 스크랜턴여사의 용기를 뒷받침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그들은 수십년간 이화학당과 이화대학을 지원하였다.

인도에서 시작된 여성 교육의 물결을 타고 설립된 또 하나의 학교가 파키스탄의 Kinnaird High School이다. Kinnaird는 1864년 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 여학교로 시작되었으나 후에 WFMS가 맡게 되었고 1913년에 대학으로 발전시켰다. Isabella Thoburn과 Kinnaird 여학교는 이화보다 언니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여전히 가난하고 기독교가 박해받는 상황이기에도 오늘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여성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이 그들로 하여금 꺼지지 않는 등불로 깊은 소명을 감당하게 한다. 특히 Kinnaird는 파키스탄의 수 많은 전쟁과 회교도 국가로서 여성차별이 심하기에 기독교 여학교로 100년 넘게 존속하는것이 기적이다.

Isabella Thoburn, Kinnaird, 그리고 이화는 WFMS라는 한 어머니에서 태어났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기독교 발전에 힘입어 이화가 성장하였고, 북미주로 이주한 이화의 딸들로 인해 이화는 세계적인 지도력을 감당하게 되었다. 세 자매는 다른 지역에서 성장하여 서로 모르며 지내왔지만, 스크랜턴 장학금으로 인해 자매들이 우리 마음속에 연결이 되었다.

2011년 11월 Isabella Thoburn 대학이 125주년을 맞이한다. 이 행사에 학교 학당장이 북미주 이화여고 동창회와 WFMS의 후손들을 초대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의 자매들이 그들을 방문한 적이 없다. 이번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될것이다. 우리가 정성드려 모은 장학금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축복을 많이 받은 이화의 후손들이 스크랜턴 장학금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여성 리더십을 세워나가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사명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한 모퉁이에 임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만들어가는 북미주이화총동창회에게 경의와 감사함을 표하는 바이다.

### Isabella Thoburn College 장학생의 이야기 중...

“제 꿈 중 하나는 건강한 인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영양사가 되어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자아성취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Health Care Administrative Services에서 일하고자 하며, 현재 대학에서 영양학과 보건학 공부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스크랜턴 장학금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이 장학금은 제가 꿈을 향해 가는 길에 비춰진 하나의 불빛입니다. 이 장학금으로 인해 저는 더 넓은 세상에 놓이게 될 것이며,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하는데 있어 자신감과 도움을 줄 것입니다.” -Baptist Alma

2009년 스크랜턴 장학금은 인도 Isabella Thoburn College 학생 3명, 파키스탄의 Kinnaird College for Women 학생 10명, 총 13명의 학생에게 총 US\$8,500.00이 지급되었다.

장학생 이름: Feba Varghese, Ankita Masih, Alma Baptist  
국가: India 학교명: Lucknow Isabella Thoburn College 장학금 지급액수: US\$1,500.00

장학생 이름: Rauf Maria Iqbal, Marilyn Naeem, Mischelle Jabob, Siddique, Neelum, Anym Hayat, Neelum Ashiq, Rubecca Rashid, Aynas Anwar, Monica Waris, Sara Tanvir  
국가: Pakistan, Lahore 학교명: Kinnaird College for Women 장학금 지급액수: US\$7,000.00

위 학생들은 현재 각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철학,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화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있다. 스크랜턴 장학금은 어려운 교육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우선으로 지급되고, 그 중에서도 학교와 교회,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리더를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장학금은 학교와 파트너십을 장려하기 위해 현재는 학비만을 주고 있다. 학업 성적은 평균 B이상을 요구한다.

## 우리나라의 여성 교육을 위해 돈을 내놓은 기부자 1호는 누구일까

1883년 9월 미국 감리교 해외 여성 선교회가 오하이오 주 라벤나에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한 부인이 '조선 여성들을 위한 선교와 교육에 써 달라'면서 88달러를 헌금했다. 그의 이름은 루신다 B. 볼드윈이었다.

당시 인도 중국 일본에서 여성교육과 선교 사업을 하고 있던 여성 선교회는 볼드윈 부인의 기부를 계기로 조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885년 52세의 여성 선교사 메리 F. 스크랜튼을 조선에 파견했다. 스크랜튼 부인은 1886년 5월 한국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을 설립했으며, 77세로 별세할 때까지 여성교육과 선교에 헌신했다.

### 여성교육 위한 기부자 1호

작은 마을 라벤나에 살던 볼드윈 부인은 어떻게 조선에 대해 알게 되었을까. 도쿄대 동양학 교수였던 그리피스에 <은자의 나라 조선>(1882년 뉴욕에서 발간)을 읽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 책은 당시 남존여비의 전통 속에 자신의 이름조차 갖지 못한 채 억눌려 살아가고 있던 조선 여인들의 처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었다.

루신다 B. 볼드윈의 이름이 뜨겁게 떠오른 것은 2007년 여름 이화여고 북미주 동창들이 볼드윈의 고향인 라벤나를 방문하면서부터였다. 미 감리교 창립 150주년 기념 오하이오 동부 연회에 초대 받은 이화 동창 합창단은 찬송가와 교가를 부르면서 한 세기 전 학교를 세워 준 여성 선교회에 감사했고, 3,000여 명의 연회 참석자들은 감동적인 기립박수로 그들을 환영했다.

이화 동창들은 볼드윈 부인이 다니던 교회와 가족 묘를 참배하며 아름다운 인연을 다졌다. 그리고 한 세기 전 미국 여성 선교사들이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 학교를 세웠듯이 저개발국 여성들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돕자는 데 뜻을 모았다. 그들은 이화학당 설립자 스크랜튼의 이름을 붙인 장학금을 모금하기 시작했고, 2년 동안 26만 달러를 모았다.



지난 20일 뉴욕에서 북미주 총동창회를 연 그들은 1차로 모금한 돈을 미 감리교 여성 선교회에 기부하여 저개발국 여성들의 교육을 돕는 사업에 쓰기로 결정했다. 126년 전 '자기 이름도 갖지 못한' 조선 여성들의 교육을 위해 88달러를 기부했던 볼드윈 부인과 학교를 세우고 스승이 되어준 스크랜튼 부인에 대한 보은(報恩)의 헌금이였다. 모교의 발전기금이니

후배들의 장학금을 보내던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3세계의 여성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씨앗을 심겠다는 뜻 깊은 기부였다.

교육은 한국 여성들의 삶을 바꾸고 가정과 사회를 바꿨다. 교육 받은 여성 인재들은 나라와 세계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저개발국의 어려운 소녀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의 삶도 바뀔 것이다. 그들은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바꿀 것이며, 세계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한 세기 전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조선 여성들에게 교육은 인간답게 사는 길을 찾게 해 준 등불이었다. 이제 제3세계 여성들이 등불 하나씩 들고 길을 찾을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 백년후에 거들 꽃과 열매

뉴욕에서 동창의 한 사람으로 스크랜튼 장학금 모금을 지켜보면서 씨앗을 뿌리고 꽃과 열매를 맺는 긴 세월을 생각해 보았다. 볼드윈 부인은 그 당시로는 적지 않은 돈인 88달러를 기부하면서 어떤 꿈을 꾸었을까. 학생을 구할 수 없어 버려진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스크랜튼 부인은 조선 여성의 미래를 어떻게 상상했을까. 우리가 오늘 돕고자 하는 어려운 나라의 여성들이 백년 후에 거들 꽃과 열매는 얼마나 엄청날까.

기부는 아름답다. 멀고 긴 꿈을 꾸는 기부는 더 아름답다. 우리가 생전에 볼 수 없더라도 기부는 확실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볼드윈의 꿈, 스크랜튼의 꿈이 열매 맺은 것처럼.

총동창회장, 한국일보 고문, 장명수(60)

**이화 자율형 사립고 기념 장학금 모금 운동**

이화여고가 자율형으로 바뀌며 사립고로 발전하여, 옛 명문교로 재도약할수 있도록 서울의 총동창회에서는 (회장; 장명수) 앞으로 '이화 장학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화장학재단 설립 취지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재단법인 이화장학회를 설립하여 모금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여성 인재를 육성하고, 교사 학술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기부자의 뜻에 따른 교육관련 사업으로 한국여성교육의 세계화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현재 북미주 총동창회가 관리하고 있는 장학금은 Mary Scranton scholarship at Scranton leadership center in Seoul (27만 5천불) 입니다 (김혜선 목사님 보고서 참조, 페이지 #8). 2009년에 뉴욕팀, 3대 총동창회 실행 위원임원들이 열심히 장학금을 모아 모교에 Scranton 장학금(5만불)과 Baldwin 장학금(1만불)을 만드셨습니다.

이번 4대 북미주 총동창회는 서울 총동창회와 호흡을 맞추어, 우리 모교가 자율형 사립고가 된 기념 장학금을 모금하고자 합니다. 자율형 사립고로 거듭난 이화가 많은 영재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든든한 이화 장학 재단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Baldwin 여사의 \$88이 오늘날의 이화를 만들고 수만명의 훌륭한 이화인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작은 씨의 힘은 굉장합니다.

존경하는동문님들, 우리도 Baldwin 여사의 \$88 헌금 정신을 따라 조그마한 씨를 뿌려봅시다. 성심껏 모교와 후배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주시는 장학금 찬조금은 tax deductible 입니다.

2010-2011년의 장학금 모금 운동의 중점은 이화 자율형 사립고 기념 장학금과 Baldwin 여사의 보은 이화 장학금 모금 운동입니다만, 기존되어있는 장학금도 있으니 동문님의 장학금 찬조의 뜻을 어디에 주실지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화 자율형 사립고 기념 장학금: \$ \_\_\_\_\_  
(제2의 명문 사립고로 재도약하는 이화의 새로운 역사를 기념하는 장학금입니다. 동문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2. Lucinda Baldwin 보은-이화 장학금: \$ \_\_\_\_\_  
(이화의 첫 역사를 시작하신 기부자 1호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장학금입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3. Scranton 장학금(모교생을 위한): \$ \_\_\_\_\_
4. Mary Scranton Scholarship  
(for educ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y): \$ \_\_\_\_\_

\* \* \* \* \*

#1은 장학재단이 인정되는대로 서울 총동창회를 통하여 모교로 갑니다.

#2,3은 모교로 갑니다.

#2, Lucinda Baldwin 보은-이화장학금 recipient은 두명:

(모교생 1명, Ravenna 고등학교 여학생 1명)

#4, Mary Scranton Scholarship은 Mary Scranton Scholarship Fund로 갑니다.

보내주시는 모든 찬조금은 Payable to Ewha Educational Foundation(EEF)으로 하셔야 tax deductible이 됩니다.

**보내주실 주소는:**

Ewha Educational Foundation, Inc  
P.O. Box 470146  
Broadview Heights, Ohio 44147

